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문 경 주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지각된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기의 우울 및 불안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남녀학생 1026명에게 우울 및 불안 척도와 지각된 양육행동에 관한 척도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에 대해 3개의 요인(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모두에서 지각된 양육행동은 불안에 비해 우울과 더 높은 관련이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우울은 애정 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불안은 과잉간섭 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우울, 불안 모두에서 애정 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존중 요인은 중학교 남학생의 우울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인 측면 및 발달 연령상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우울, 불안, 초기 청소년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에서 국제학술교류활동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이 논문은 APA 109th Annual Convention에서 포스터 발표 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 경 자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
FAX : 02-365-4354 / E-mail : kjoh@yonsei.ac.kr

최근 몇 십 년 동안 우울 및 불안의 기원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나, Schaefer(1959)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크게 돌봄(warmth) 차원과 통제(control)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한 이래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후속 연구들에서도 이 두 차원은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Armentrout & Burger, 1972; Burger & Armentrout, 1971; Cross, 1969; Gerlsma, Arrindell, van der Veen, & Emmelkamp, 1991; Kawash & Clewes, 1987; Parker, Tupling, & Brown, 1979; Schwarz & Mearns, 1989). 돌봄 차원은 따뜻함과 수용으로부터 거부로 이어지는 축으로 구성되며, 통제차원은 과보호, 과잉개입으로부터 자율성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축으로 구성된다(Rapee, 1997).

우울 및 불안과 부모의 양육행동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 중 상당수는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 부모의 양육행동을 회고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고적인 연구들에서는 비환자 집단에 비해 우울증 환자 집단이 그들의 부모를 더욱 거부적이고 통제적이었던 것으로 보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Crook, Raskin, & Eliot, 1981; Jacobson, Fasman, & DiMascio, 1975; Parker, 1979a; Plantas, Prusoff, Brennan, & Parker, 1988). 이러한 결과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었다(Johnson, Petzel, Dupont, & Ramano, 1982; Winefield, Goldney, Tiggemann, & Winefield, 1989).

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고적인 연구들에서도 비환자 집단에 비해 불안장애 환자 집단이 그들 부모를 더욱 거부적이고 통제적이었던 것으로 보고함이 밝혀졌다(Bruch & Heimberg,

1994; Laria, Stuart, Frye, Lydiard, & Ballenger, 1994; Parker, 1981).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강박증상이나 사회불안, 자의식이 높은 집단이 불안 증상이 낮은 집단에 비해 그들 부모를 더욱 거부적이고 통제적이었던 것으로 보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Ehiobuche, 1988; Frost, Steketee, Cohn, & Criess, 1994; Klonsky, Dutton, & Liebel, 1990). 이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인 보고를 하도록 한 연구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부모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우울 및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재 증상에 의한 왜곡이나 기억에서의 편파로 인해 그 관련성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증상에 의한 왜곡이나 기억에서의 편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아동, 청소년에게 현재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연구가 매우 많이 수행된 것에 비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Kaslow와 Rehm 및 Siegel(1984)은 비임상 집단에서 우울 수준이 높은 아동이 우울 수준이 낮은 아동에 비해 자신들의 가족 환경을 덜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발견하였다. Burbach와 Kashani 및 Rosenberg(1989)는 우울증 청소년들을 외현화 장애를 보이는 청소년 및 정신과적 장애를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과 비교하였을 때 부모의 거부 및 통제에 대한 지각이 외현화 장애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우울 집단, 정상 통제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울 증상과 부모의 거부적 행동의 지각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었으나, 우울 증상과 부모의 통제행동의 지각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 청소년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그들의 불안증상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도

그 수효가 제한되어 있으며, 그 결과도 일관적이지 못하다. Stark와 Humphrey와 Crook 및 Lewis (1990)는 구조화된 임상면접을 통해 불안장애로 진단된 아동들을 정신과적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들과 비교하였는데, 불안장애로 진단된 아동들의 경우 그들의 가족을 좀 더 거부적이고 과잉 통제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Perry와 Millimet(1977)의 연구에서는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들과 불안 수준이 낮은 아동간에 부모의 거부나 통제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그들의 우울, 불안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연구대상이나 측정도구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우울 및 불안장애 각각에 대한 연구에 비해 우울집단과 불안집단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데, Alnaes와 Torgersen(1990)은 55명의 우울 집단과 84명의 불안 집단, 36명의 우울/불안 공존집단에서의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 점수를 비교하였다. Stark 등(1990)도 아동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는 우울이나 불안과 특정하게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의 특징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단지 부모의 거부나 통제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더욱 심한 정도의 정신병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er (1979b)는 우울 및 불안과 부모의 돌봄, 과보호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어머니의 돌봄이 우울과 불안에 가장 강력한 예언인자였으며, 어머니의 과보호는 불안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그들의 우울 및 불안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중

합하여 볼 때, 부모의 거부 및 통제가 자녀의 우울, 불안에 모두 관련되기는 하지만, 우울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거부적인 행동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안은 부모의 통제적인 행동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Rapee, 1997).

다만, 이러한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서구사회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동양권에서는 문화적인 특성상 양육행동이 서구사회와는 매우 다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가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적대감이나 거부와 관련되는 반면(Rohner & Rohner, 1978),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가 부모의 관심 및 돌봄과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Rohner & Pettengil, 1985). 부모의 과보호가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과잉개입과 과보호가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지각된 과보호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서구사회에서는 하나의 구인으로 밝혀져 온 부모의 과보호 차원 중 자녀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의존심을 유발하는 부모의 침입적인 행동과 자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잉 개입하는 과보호 행동은 한국 청소년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즉, 부모의 침입적인 행동은 서구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반면, 과보호 행동은 Rohner와 Pettengil(1985)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관심이나 돌봄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우울이나 불안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지만,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보다는 아동에 의해 지각된 양육행동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고 (Parker, 1983), 최근의 인지모델들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실제 양육행동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및 표상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각된 양육행동과 아동,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PBI의 요인구조를 확인함으로써 통제차원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한국 청소년들에게도 하나의 요인으로 확인되는지 알아보았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들이 우울 및 불안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의 문화적인 차이를 확인하고,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간의 관련성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199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초등학교의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남, 여학생과 3개 중학교의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남,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자기보고 검사에서 신뢰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에 응한 대상자는 총 1403명이었는데, 이 중 한 문항이라도 설문에 응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한 총 1026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 중 초등학생은 496명(남학생 243명, 여학생 253명), 중학생은 530명(남학생 238명, 여학생

292명)이었으며,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12.83세(SD, 1.76), 여학생의 평균 연령은 12.80세(SD, 1.72)였다.

절차

본 연구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설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구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Parker (1979a)가 제작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PBI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각각 25문항씩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arker(1979a)는 요인분석을 통해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를 핵심적인 양육 차원으로 추출하였으며,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도 돌봄과 과보호 2개의 요인구조가 밝혀졌다.

아동용 우울척도

아동,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Kovacs(1981)가 제작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역,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CDI는 아동기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해 Beck, Ward, Mendelson과 Mock 및 Frbaugh(1961)이 개발한 성인용 우울척도를 아동의 연령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 7세에서 17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27개의 문항에 대해 지난 2주일동안 자신을 가장 잘 기술해주는 정도를 0점에서 2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공존병리를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우울증에만 특징적으로 해당되는 문항 21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아동용 불안척도

아동, 청소년의 불안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Reynolds와 Richmond (1978)가 제작한 Revised Child Manifest Anxiety Scale(RCMAS)을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역,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37개 문항 중 28개 문항은 불안척도, 나머지 9문항은 허구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공존병리를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불안장애에만 특징적으로 해당되는 문항 12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계수는 .77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결 과

PBI의 요인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2개의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을 때, 선행 연구들(Parker, 1979a; 송지영, 1992)에서 과보호에 속했던 상당수의 문항이 돌봄차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문항은 주로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고 독립성을 존중하는

문항들이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각각에 대해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고 사각회전법(orthoblique rotaion: HKP=.2)으로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각각에 대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서 3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전체 변량의 35.61%였으며, 요인 1의 설명변량은 26.97%, 요인 2의 설명변량은 5.89%, 요인 3의 설명변량은 2.7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해서 3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전체 변량의 36.52%였으며, 요인 1의 설명변량은 27.67%, 요인 2의 설명변량은 6.05%, 요인 3의 설명변량은 2.80%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3개의 요인에 속하는 문항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3개의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동일한 요인구조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요인 1에 해당되는 문항은 11문항씩으로 「애정」으로 명명하였으며,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주신다, 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기신다」와 같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돌봄이나 따뜻함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2에 해당되는 문항은 6문항씩으로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하신다, 나를 과잉보호하신다」와 같이 자녀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의존성을 유발하는 침입적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과잉간섭」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3에 해당되는 문항은 7문항씩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신다, 내가 원할 때는 언제나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신다」와 같이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거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율성 존중」으로 명명하였다.

과잉간섭요인에 속하는 문항 중 “내가 어른스러워지길 원하십니까(문항 8)”는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이고, 공통변량(communality)이 .09와 .08로 매우 낮게 나타나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아 24개 문

표 1.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 (.20이상만 표기하였음)

문 항 번 호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행동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12.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주신다.	.82			.79		
11. 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기신다.	.77			.69		
6. 나에게 다정하시다.	.70			.77		
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신다.	.65			.73		
17. 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주신다.	.58			.56		
18. 나와 가끔 이야기를 나누신다.	.57			.49		
24. 나를 칭찬해주신다.	.56			.58		
5.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하신다.	.53			.55		
2.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신다.	.43		.30	.46		.28
4. 나에게 쌀쌀하게 대하신다.	-.38			-.57	.21	
16. 나는 원치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신다.	-.34	.27		-.44	.27	
9.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하신다.		.58			.52	-.23
23. 나를 과잉보호하신다.		.54			.52	
10. 나의 개인생활을 침범하신다.		.47	-.33		.47	-.30
13. 나를 어린애 취급하신다.		.42			.39	
20.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		.40			.43	
19. 어머니/아버지에게 의존심을 갖게 하신다.		.36			.32	
21.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신다.			.72			.66
22. 내가 원할 때는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신다.			.56			.59
25.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신다.			.46			.45
14.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듯하다.	.35		.41	.38		.38
3.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주신다.	.27		.37	.23		.46
15. 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신다.	.30		.32			.55
7.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신다.	.31		.32			.53
8. 내가 어른스러워지길 원하신다.		.24			.24	
설 명 변 량	26.97	5.89	2.75	27.67	6.05	2.80

항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이며, 둘간의 상관이 애정요인의 경우 $r=.609(p<.001)$, 과잉간섭요인의 경우 $r=.827(p<.001)$, 자율성 존중요인의 경우 $r=.737(p<.001)$ 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 각각에 대해 .89, .80, .8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애정 요인과 과잉간섭 요인간에 $r= -.124(p<.001)$, 애정 요인과 자율성 존중 요인간에 $r= .697(p<.001)$, 과잉간섭 요인과 자율성 존중 요인간에 $r= -.214(p<.001)$ 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성차 분석 결과, 우울수준은 차이가 없었으나, 불안수준은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1022)=8.94, p<.01$. 부모의 애정 ($F(1,1022)=5.83, p<.05$) 및 자율성 존중($F(1,1022)=4.48, p<.05$)에 대한 지각은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과잉간섭에 대한 지각은 남학생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1022)=4.81, p<.05$. 초등학교 집단과 중학생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불안수준은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수준은 중학생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1022)=12.27, p<.001$. 부모의 과잉간섭에 대한 지각은 초등학교 집단과 중학생 집단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애정($F(1,1022)=58.49, p<.001$) 및 자율성 존중($F(1,1022)=33.34, p<.001$)에 대한 지각은 중학생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에서 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측정치별 평균과 표준편차

	초등학교 집단 (n=496)		중학생 집단 (n=530)		전체 집단 (n=1026)		F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우울점수 (우울특정문항)	9.10 (5.67)	9.07 (4.82)	10.00 (5.02)	10.54 (5.90)	9.55 (5.37)	9.86 (5.47)	(연령 주효과) 12.27*** (성별 주효과) .57
불안점수 (불안특정문항)	5.44 (2.99)	5.74 (3.16)	5.51 (3.07)	6.38 (3.18)	5.48 (3.03)	6.08 (3.18)	(연령 주효과) 3.25 (성별 주효과) 8.94**
PBI: 애정	73.54 (9.46)	75.02 (9.20)	68.68 (10.58)	70.24 (10.80)	71.13 (10.31)	72.46 (10.36)	(연령 주효과) 58.49*** (성별 주효과) 5.83*
PBI: 과잉간섭	25.58 (6.24)	24.28 (6.39)	25.28 (6.17)	24.92 (5.47)	25.43 (6.20)	24.62 (5.92)	(연령 주효과) .20 (성별 주효과) 4.81*
PBI: 자율성존중	54.33 (6.95)	44.41 (6.56)	40.93 (7.35)	41.71 (7.25)	42.14 (7.24)	42.97 (7.06)	(연령 주효과) 33.34*** (성별 주효과) 4.48*

() 안은 표준편차 * $p<.05$ ** $p<.01$ *** $p<.001$

* 연령 및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표기하지 않았음.

표 3. 불안 및 우울과 지각된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초등학교 집단				중학교 집단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우울	불안	우울	불안	우울	불안	우울	불안
애정	-.370***	-.131*	-.520***	-.229***	-.373***	-.170**	-.570***	-.304***
과잉간섭	.148*	.176**	.189**	.182**	.207***	.272***	.245***	.239***
자율성 존중	-.283***	-.070	-.364***	-.112	-.368***	-.123	-.451***	-.290***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연령별 집단에 따라 우울, 불안 수준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중학교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각각에 대해 각 척도들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지각된 양육행동 중 애정 요인과 과잉간섭 요인은 우울 및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율성 존중 요인은 우울과 모든 집단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과는 중학교 여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 수준은 연령이나 성에 관련 없이 모두 애정 요인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불안 수준은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잉간섭에 대한 지각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애정에 대한 지각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에 대한 지각이 아동,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남학생 집단에서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남학생의 우울에 대해 15.5%($F(2,240)=22.06$, $p < .001$), 중학교 남학생의 우울에 대해

16.7%($F(2,235)=23.57$, $p < .001$)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남학생 불안에 대해 4.7%($F(2,240)=5.88$, $p < .01$), 중학교 남학생의 불안에 대해 9.0%($F(2,235)=11.61$, $p < .001$)의 변량을 설명하여 우울에 비해 설명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여학생의 우울에 대해 27.0%($F(1,251)=93.01$, $p < .001$), 중학교 여학생의 우울에 대해 32.5%($F(1,290)=139.82$, $p < .001$)의 변량을 설명하여 남학생의 우울에 대한 설명량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설명력을 보였다. 한편,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여학생 불안에 대해 7.3%($F(2,250)=.89$, $p < .001$), 중학교 여학생의 불안에 대해 11.6%($F(2,289)=18.93$, $p < .001$)의 변량을 설명하여 남학생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울에 비해 설명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에 대한 지각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에서 지각된 애정이 초등학교 남학생 우울의 13.7%($F(1,241)=38.15$, $p < .001$), 중학교 남학생 우울의 13.9%($F(1,236)=38.24$, $p < .001$)로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지각된 과잉간섭은 초등학교 남학생 불안의 3.1%($F(1,241)=$

표 4.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의 하위차원이 초기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남학생 집단>

		<i>R</i>	<i>R</i> ²	ΔR^2	<i>Beta</i>	<i>F</i>	<i>df</i>	<i>t</i>
우울	애정 요인	.370	.137	.137	-.365	38.15***	1,241	-6.15***
	과잉간섭 요인	.394	.155	.019	.136	5.29***	1,240	2.30*
불안	과잉간섭 요인	.176	.031	.031	.172	7.70**	1,241	2.73**
	애정 요인	.216	.047	.016	-.125	3.96*	1,240	-1.99*

** $p < .05$ * $p < .01$ *** $p < .001$

<중학교 남학생 집단>

		<i>R</i>	<i>R</i> ²	ΔR^2	<i>Beta</i>	<i>F</i>	<i>df</i>	<i>t</i>
우울	애정 요인	.373	.139	.139	-.233	38.24***	1,236	-2.99**
	자율성존중 요인	.409	.167	.028	.218	7.79***	1,235	-2.79**
불안	과잉간섭 요인	.272	.074	.074	.250	18.79***	1,236	3.97***
	애정 요인	.300	.090	.016	-.129	4.18*	1,235	-2.04*

** $p < .05$ * $p < .01$ *** $p < .001$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

		<i>R</i>	<i>R</i> ²	ΔR^2	<i>Beta</i>	<i>F</i>	<i>df</i>	<i>t</i>
우울	애정 요인	.520	.270	.270	-.520	93.01***	1,251	-9.64***
불안	애정 요인	.229	.052	.052	-.204	13.84***	1,251	-3.30***
	과잉간섭 요인	.271	.073	.021	.147	5.69*	1,250	2.39*

** $p < .05$ *** $p < .001$

<중학교 여학생 집단>

		<i>R</i>	<i>R</i> ²	ΔR^2	<i>Beta</i>	<i>F</i>	<i>df</i>	<i>t</i>
우울	애정 요인	.570	.325	.325	-.570	139.82***	1,290	-11.82***
불안	애정 요인	.304	.093	.093	-.255	29.58***	1,290	-4.38***
	과잉간섭 요인	.340	.116	.023	.160	7.60**	1,289	2.76**

$p < .01$ *** $p < .001$

7.70, $p < .01$), 중학교 남학생 불안의 7.4%($F(1,236) = 18.79$, $p < .001$)로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남학생 집단에서는 우울에 대해 과잉간섭 요인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 남학생 집단에서는 자율성 존중 요인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는 지각된 애정이 우울이나 불안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설명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애정은 초등학교 여학생 우울의 27.0%($F(1,251) = 93.01$, $p < .001$), 중학교 여학생 우울의 32.5%($F(1,290) = 139.82$, $p < .001$), 초등학교 여학생 불안의 5.2%($F(1,251) = 13.84$, $p < .001$), 중학교 여학생 불안의 9.3%($F(1,290) = 29.58$, $p <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에 대해서만 과잉간섭 요인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애정(warmth)차원과 통제(control) 차원을 두 축으로 양육행동을 평가해 왔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는 척도인 PBI에서도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두 차원이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PBI를 요인분석한 결과, 과보호 요인이 과잉간섭 요인과 자율성 존중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자율성 존중 요인은 과잉간섭 요인보다 애정 요인과 더 높은 상관을 보임이 발견되었다. 이는 기존에 이론적,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 규정되었던 통제차원이 단일한 구성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이 주로 불안장애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되는 양육변인으로 통제 혹은 과보호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의미있는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과보호와 불안장애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서는 과보호요인에 대한 문화적 차이 및 발달연령상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오욱진(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대학생 집단의 PBI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수를 2로 지정하였을 때는 돌봄과 과보호 두 개의 요인구조가 밝혀졌으며, 해당되는 문항도 Parker(1979a)와 송지영(1992)의 선행연구에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er(1979a)와 송지영(1992), 오욱진(1998)의 연구가 모두 성인집단에게 부모의 양육행동을 회고적으로 보고하게 하였을 때 얻어진 결과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인에게 있어서는 요인 3에 해당되는 부모의 자율성의 제한 및 행동의 규제가 과보호 및 통제로 지각되는 반면, 초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이러한 행동이 애정이나 신뢰의 결여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Rohner와 Pettengil(1985)의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가 부모의 관심 및 애정과 정적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애정 요인과 과잉간섭 요인, 자율성 존중 요인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효과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불안보다는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불안에 비해 우울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거의 2-3배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에 비해 불안의 발생 및 유지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했기 때문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초기 청소년의 불안을 연구하고 치료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 이외에 이들의 기질이나 다른 사회적 관계 등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은 명백해 보인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우울, 불안 모두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32.5%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많은 인지적,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매우 큰 설명력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성차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겠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에 비해 좀 더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오욱진(1998)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 집단에서는 4.5%($F(1,216)=10.28, p<.01$), 여학생 집단에서는 10.1%($F(2,233)=13.13, p<.001$)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회상에 기초하지 않으며, 현재의 우울 및 불안 수준과 현재의 부모의 양육행동을 동시에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며, 다른 한편 초기 청소년 집단의 경우 대학생 집단보다 부모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시기임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과 우울 및

불안간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는데, 남녀학생 모두에서 초등학교 집단에 비해 중학생 집단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우울 및 불안과 좀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며, 특히 중학생 시기에는 부모의 양육행동보다는 또래관계에서의 수용이나 사회적 관계가 우울이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진다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것이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닌 초기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할 수 있으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표상은 여전히 청소년의 적응이나 심리적 문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애정 요인은 우울과 좀 더 특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과잉간섭 요인과 자율성 존중 요인은 불안과 좀 더 특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애정 요인이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과잉간섭 요인은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가설이 지지되었으나, 여학생 집단에서는 우울과 불안 모두에 애정 요인이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 성별에 따라 청소년들이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을 지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자율성존중 요인은 중학교 남학생의 우울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성존중 요인이 애정 요인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력에 비해 통계적인 분석에서는 그 영향력이 다소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율성존중 요인과 우울간의 상관이 과잉간섭 요인과 우울간의 상관에 비해 모든 집단에서 더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자율성존중 요인이 중학교 남학생 집단에서만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초등학교 남학생 집단에서 자율성존중 요인과 우울의 상관이 $r = -.283(p < .001)$ 인 것에 비해 중학교 남학생 집단에서의 자율성존중 요인과 우울의 상관이 $r = -.368(p < .001)$ 인 것을 비교해 볼 때, 부모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독립성의 격려가 중학교 남학생 집단의 우울에 좀 더 중요하게 기여할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율성 존중 요인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과잉간섭 요인과 같은 차원의 반대편 측면으로 이해되어 왔고, 특히 불안장애의 발생 및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잉간섭 요인보다는 애정 요인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불안보다는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과보호 차원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각된 양육행동을 평가할 때에는 과보호 차원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며, 특히 부모의 과보호가 초기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지각되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에는 성차 및 발달적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

생의 경우 부모의 과잉간섭에 대한 지각이 불안과 관련되며, 부모의 애정에 대한 지각이 우울과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애정에 대한 지각이 우울, 불안 모두와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존중 요인은 초등학교 집단보다는 중학생 집단의 우울과 좀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초기 청소년의 지각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양육행동과의 비교를 통해 양육행동의 차원 및 양육행동과 우울, 불안간의 관계에 관한 좀 더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환경적, 기질적 측면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 (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91.
- 오옥진 (1998).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관계지향성 및 성취지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 943-956.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불안의 측정: 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 691-702.
- Alnaes, R., & Torgersen, S. (1990). Parental representation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nxiety disorder and mixed condition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1, 518-522.

- Armentrout, J. A., & Burger, G. K. (1972). Factor analyses of college students' recall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1, 155-161.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91.
-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155-168.
- Burbach, D. J., Kashani, J. H., & Rosenberg, T. K. (1989). Parental bonding and depressive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417-429.
- Burger, G. K., & Armentrout, J. A. (1971). A factor analysis of fifth and sixth graders' report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 483.
- Crook, T., Raskin, A., & Eliot, J. (1981).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dult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2, 950-957.
- Cross, J. J. (1969). college students' memories of their parents: A factor analysis of the CRPBI.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275-278.
- Ehiobuche, I. (1988). Obsessive-compulsive neurosis in relation to parental child-rearing patterns amongst the Creek, Italian, and Anglo-Australian subject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344 (Suppl.), 115-120.
- Frost, R. O., Steketee, G., Cohn, L., & Griess, K. (1994). Personality traits in subclinical and nonobsessive-compulsive volunteers and their par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47-56.
- Gerlsma, C., Arrindell, W. A., van der Veen, N., & Emmelkamp, P. M. G. (1991). A parental rearing style questionnaire for use with adolescents: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EMBU-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245-1253.
- Jacobson, S., Fasman, J., & DiMascio, A. (1975). Deprivation in the childhood of depressed wome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0, 5-14.
- Johnson, J. E., Petzel, T. P., Dupont, M. P., & Ramano, B. M. (1982). Phenomenological perceptions of parental evaluations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56-62.
- Kaslow, N. J., Rehm, L. P., & Siegel, A. W. (1984). Social-cognitive and cognitive correlates of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605-620.
- Kawash, G. F., & Clewes, J. L. (1987). A factor analysis of a short form of the CRPBI: Are children's perceptions of control and discipline multidimensional? *The Journal of Psychology*, 122, 57-67.
- Klonsky, B. G., Dutton, D. L., & Liebel, C. L. (1990).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 273-297.
-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y*, 46, 305-315.

- Laraia, M. T., Stuart, G. W., Frye, L. H., Lydiard, R. B., & Ballenger, J. C. (1994). Childhood environment of women having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1-17.
- Parker, G. (1979a).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Parker, G. (1979b).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rait depression and anxiety levels in a nonclinical group.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13, 260-264.
- Parker, G. (1981). Parental representations of patients with anxiety neurosi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3, 33-36.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Sydney: Grune & Stratton.
- Parker, G., Tulp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52, 1-11.
- Perry, N. W., & Millimet, C. R. (1977). Child-rearing antecedents of low and high anxiety eighth-grade children. In C. D. Spielberger & I. G. Sarason (Eds.), *Stress and Anxiety*, vol. 4. (pp. 189-204). New York: Wiley.
- Plantes, M. M., Prusoff, B. A., Brennan, J., & Parker, G. (1988). Parental representations of depressed outpatients from a U.S.A.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149-155.
- Rapee, R. M. (1997). The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47-67.
- Reynolds,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6, 271-280.
- Rohner, R. P., & Pettengri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hner, R. P., & Rohner, E. C. (1978). Unpublished research data.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warz, J. C., & Mearns, J. (1989). Assessing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 comparison of parent, child, and aggregate ratings from two instrum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 450-468.
- Stark, K. D., Humphrey, L. L., Crook, K., & Lewis, K. (1990).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of depressed and anxious children: Child's and maternal figure's perspectiv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527-547.
- Winefield, H. R., Goldney, R. D., Tiggemann, M., & Winefield, A. H. (1989). Reported parental rearing pattern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short form of the EMBU.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459-465.
- 원고접수일 : 2001. 4.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1. 10. 19.
게재결정일 : 2001. 11. 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and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Kyung-Joo Moon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The depression and anxiety scores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scores were gathered from 1026 early adolescents. On the basis of factor analysis, three factors(warmth, intrusion, autonomy granting) were extracted from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n both boys and girl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were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than anxiety. In boys, parental warmth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depression, while for anxiety parental intrus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In girls, parental warmth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both depression and anxiety. The finding were discussed in terms of gender differences and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nd depression and anxiety in early adolescents.

Keywords :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depression, anxiety, early adolescents